

수 있나요? 이 돌덩어리로 저와 같은 암을 고친 근거가 있나요?”

“역시……그 개 버릇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저의 험악스러운 말에 주변 분위기가 설렁해지고 주방에 도마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작정하였기에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시면 스스로 연구해서 암 치료제 개발하고 드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영숙씨와 논쟁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분과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하하하…..권 선생님. 화를 푸시고요. 저의 부인이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니다. 조선족이라도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을 해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라도 한족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한족사람들과 지내면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행동이 우리와는 틀린 민족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조선족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편과 살고 있어서 제가 방심하고 신분과약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영숙씨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생각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중국어가 편안하시면 중국어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